

# 괴테문학의 치유의 모멘트

최승수\*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고뇌에서 성찰로
3. 치유의 모멘트
4. 나오는 말

### 〈국문초록〉

최근 인문학 연구는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한편 문명에 압도되고 가치가 표류하는 시대에 휴머니즘에 근거하는 가치를 지켜내려는 노력이며, 다른 한편 왜곡되고 손상된 존재를 치유하기 위한 시도이다.

삶의 근원적 고뇌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부조리하고 비이성적인 세계에 내던져짐으로 해서 야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삶의 유한함에 절망하고, 실존적 불안에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나아가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 등 고뇌의 계기들은 또한 부조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한 불행으로 이어져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한다. 이러한 고뇌를 이겨내기 위한 출발점을 괴테문학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괴테에게 고뇌란 존재의 기본조건이다. 따라서 '나는 고뇌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가 성립한다. 고뇌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이기에 고뇌에 대한 성찰 또한 필수적이다. 이별이란 트라우마는 이별은 피할 수 없다는 사랑의 법칙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별보다 더한 사랑의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로 극복가능하다. 안식에 들 수 없는 불안한 존재인 우리의 숙명적 고뇌는 이를 성찰하는 또 다른 능력으로 보상된다. 삶의 유한성은 예술을 통해 시간성, 덧없음을

---

\* 경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극복한다. 사회적 존재에게 필요한 체념은 강요에 의한 자아상실이나 자기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체념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으며 나아가 부조리한 운명과 화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괴테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혜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한다.

주제어: 고뇌, 성찰, 예술, 체념, 치유

## 1. 들어가는 말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주어진 삶의 과정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한다. 우리가 피해질 수 없는 고뇌의 시간들은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를 성숙한 존재로 이끄는 계기이며 삶의 근원적 조건이다. 문명이 인간을 압도하는 시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그리움, 두려움과 더불어 우리는 다가오는 것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 가치가 표류하는 시대에 우리가 존중해 온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은 어려운 듯 보이나, 예측 불가능한 문명의 질주의 시대에도 삶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한 성찰은 우리의 과제이다.

삶이란 덧없고 사랑은 유한하며 운명은 납득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와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러한 실존의 조건들, 부조리함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겨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괴테의 주요 작품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삶의 아픔과 고뇌에 대한 괴테문학의 주제들은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여전히 시의적절하다. 사랑의 좌절, 이별의 아픔은 죽음 또는 지옥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이별에 대한 두려움은 트라우마가 되어 더 이상 사랑에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삶의 최고의 가치이다.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은 예외없이 삶의 덧없음을 한탄한다. 객관적 시간에 구속된 채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은 영원할 수 없다. 이러한

삶의 가치의 유한성을 그러나 예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괴테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안식을 갈망하는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 이에 이르지 못한다. 부조리한 세계에 내던져진 인간의 숙명은 고뇌로 특징지어지지만 형이상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고뇌에 대한 성찰을 통해, 고뇌를 인정하고 수용하게 된다. 『빌헬름마이스터의 편력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기 위해 개인은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성숙한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기본전제는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괴테적 의미에서 체념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이다. 이 태도는 일견 개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요구로서 이해될 수 있으나 괴테와 쉴러의 미적 교육의 관점에서는 자유의지의 발로로서 이해 가능하다.

괴테의 텍스트가 전하는 메시지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때 그의 ‘텍스트는 거울, 방패가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 *Das Buch als Spiegel, als Schild, oder als Tür*’<sup>1)</sup> 이 될 수 있다.

## 2. 고뇌에서 성찰로

삶의 고뇌는 누구에게나 숙명적이다. 자신의 과오로 인한 불행에 아파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우연적이며 운명적인 슬픔 또한 피할 수 없다. 때로는 그 경계 또한 모호하기도 하다.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가 슬퍼하는 덧없음, 사랑의 행복과 늘 함께하는 이별의 고통, 불안이라는 근원적인 실존의 조건, 소통의 부재, 사회적 당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욕망 등은 보편적 고뇌의 문제들이다. 이러한 삶의 문제들에 대한 성찰과 극복의 모색이 괴테연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고뇌의 계기가 되는 이러한 문제들

1) Volker Weidermann, “Poesie heilt”, *Der Spiegel*, Nr. 11. (2016), 12. March 2016  
 <<https://www.spiegel.de/spiegel/print/d-143591227.html>>, p.129.

에 대해 괴테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 해결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는 바로 고뇌의 조건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성찰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슬픔과 고뇌는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한다. 신탁이라는 운명에 저항하는 희랍비극의 주인공은 그러나 정해진 불행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무산되는 결과를 맞이한다. 희랍비극은 운명에 맞서고 저항하는 자에게 운명은 오히려 더욱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고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고뇌하는 동시에 성찰의 능력을 부여 받은 형이상학적 존재임으로 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 고뇌하는 존재이지만 성찰하기에, 성찰을 통해 고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치유의 가능성을 탐색하기에, 설사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존재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

괴테의 삶에 대한 지혜가 담겨있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는 교양의 과정을 이수한 주인공이 편력에 나서 부제가 시사하는 체념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이다. 교양의 시대를 지나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주인공은 아들 펠릭스를 교육시설에 맡기기 위해 교육주를 방문한다. 이곳에서 그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지 못한 경외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듣게 된다.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에 대한 경외심 Ehrfurcht vor dem, was über uns ist’<sup>2)</sup>, ‘우리 아래의 것에 대한 경외심 Ehrfurcht vor dem, was unter uns ist’<sup>3)</sup>, ‘우리과 같은 것에 대한 경외심 Ehrfurcht vor dem, was uns gleich ist’<sup>4)</sup>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외심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최상의

2) Johann Wolfgang von Goethe, “Wilhelm Meisters Wanderjahre”, *Goethes Werke, Bd. 8: Romane und Novellen III*, v, E, Trunz(Hrsg.), (München: C. H. Beck Verlag, 1982), pp.154~164, hier 155.

3) Johann Wolfgang von Goethe, Ibid. 155.

4) Johann Wolfgang von Goethe, Ibid. 156.

경외심 aus diesen drei Ehrfurchten entspringt die oberste Ehrfurcht, die Ehrfurcht vor sich selbst<sup>5)</sup>이 우리를 모든 면에서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본고의 주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외심은 바로 ‘우리보다 아래의 것에 대한 경외심’이다.

땅은 양식을 얻을 기회를 줍니다. 땅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보장하지요. 하지만 한없는 고통도 가져와요. 자기의 잘못이든 아니든 몸을 다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이가 고의든 우연이든 우리를 해치기도 하고, 또 현세의 우연한 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위험은 일생을 따라다니는 법이니까요.<sup>6)</sup>

sie gibt Gelegenheit zur Nahrung; sie gewährt unsägliche Freuden; aber unverhältnismäßige Leiden bringt sie. Wenn einer sich körperlich beschädigte, verschuldend oder unschuldig, wenn ihn andere vorsätzlich oder zufällig verletzen, wenn das irdische Willenlose ihm ein Leid zufügte, das bedenke er wohl: denn solche Gefahr begleitet ihn sein Leben lang.<sup>7)</sup>

인용문에서 지칭하는 땅은 삶이 기반이 되는 이 세계인데, 우리는 삶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과 생존의 조건과 즐거움을 얻게 되지만 한없는 고통 또한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과 무관한 불행과 재난은 일생을 따라 다니는데 이것은 바로 우연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의 부조리함이다. 삶의 우연성, 부조리함에 대해서 조차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과제임을 말하고 있다. 나아가 “꺼림칙한 것, 증오스러운 것, 피하고 싶은 것에 대한 존경심을 생도 누구에게나 갖춰주어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jene Verehrung des Widerwärtigen, Verhaßten, Fliehenswerten geben wir einem jeden nur ausstattungsweise in die Welt mit.”<sup>8)</sup>라는 말

5) Johann Wolfgang von Goethe, Ibid. 157.

6)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1』, 김숙희 외(역), (서울: 민음사, 1999), 203면.

7) Johann Wolfgang von Goethe, Ibid. 155.

은 만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괴로움에 대한 경외심을 갖추지 못한다면 교육주를 졸업할 수 없다는, 다시 말해 사회적 존재로 나아가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괴테의 지적이다. 한없는 고통에 대한, 심지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불행과 재난에 대한 존경심을 배우는 것이 성숙한 존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다. 고뇌에 대한 성찰, 이를 통해 주어진 삶에 대한 긍정의 태도는 고뇌에서 벗어나는 치유의 계기가 된다.

### 3. 치유의 모멘트

#### 1) 트라우마의 극복

내 가슴이 뛰었다. 얼른, 말에게로!  
미처 생각도 하기 전에 올라타고 있었다.  
저녁은 이미 대지를 잠재우고  
산에는 밤이 걸려 있었다  
벌써 안개 옷 입고 서 있다 떡갈나무가  
저 우뚝 치솟은 거인이, 저기  
덤불 속에서 어둠이  
백 개의 꺼먼 눈알로 내다보는 곳에서.

달은 구름 언덕에서 솟아 나와  
안개 밖으로 초라하게 얼굴을 내밀고  
바람은 나직이 날개를 퍼덕이며  
오싹하게 썩썩 꺾전을 스쳤다  
밤은 천(千)의 괴물을 만들고 있었지만  
내 용기는 즐겁게 치솟기만 했으니

---

8) Johann Wolfgang von Goethe, Ibid. 164.

내 핏줄 속에 이 무슨 불길인가!

내 심장 속에 이 무슨 열기인가!

그대를 바라보면, 온화한 기쁨이

그 감미로운 시선으로부터 내 몸 위로 흘렀고

내 마음 온통 그대 곁에 있어

숨결 하나하나도 그대 위한 것이었다.

장밋빛 봄 기운이

사랑스러운 얼굴을 감돌고

나 위한 사랑 있으니 - 그대 신들이여!

내 희망하였을 뿐, 얻을 자격은 없었다오!

그러나 아침 해가 떠오르자 벌써

이별이 나의 가슴을 죄어 오는구나

그대의 입맞춤에 담긴 이 희열!

그대 눈 속에 담긴 이 고통!

나는 떠나고, 그대는 서서 시선을 떨구고

그리고 내 뒷모습을 젖은 눈길로 보았지

그러나 얼마나 행복인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신들이여, 또 얼마나 행복인가!<sup>9)</sup>

Es schlug mein Herz, geschwind zu Pferde!

Es war getan fast eh gedacht.

Der Abend wiegte schon die Erde,

Und an den Bergen hing die Nacht;

Schon stand im Nebelkleid die Eiche,

Ein aufgetürmter Riese, da,

Wo Finsternis aus dem Gesträuche

Mit hundert schwarzen Augen sah.

9)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괴테 시 전집』, 전영애(역), (서울: 민음사, 2009), 51~52면.

Der Mond von einem Wolkenhügel  
Sah kläglich aus dem Duft hervor,  
Die Winde schwingen leise Flügel,  
Umsausten schauerlich mein Ohr;  
Die Nacht schuf tausend Ungeheuer,  
Doch frisch und fröhlich war mein Mut;  
In meinen Adern welches Feuer!  
In meinem Herzen welche Glut!

Dich sah ich, und die milde Freude  
Floß von dem süßen Blick auf mich;  
Ganz war mein Herz an deiner Seite  
Und jeder Atemzug für dich.  
Ein rosenfarbnes Frühlingswetter  
Umgab das liebliche Gesicht,  
Und Zärtlichkeit für mich – ihr Götter!  
Ich hofft' es, ich verdient' es nicht!

Doch ach, schon mit der Morgensonne  
Verengt der Abschied mir das Herz:  
In deinen Küssen welche Wonne!  
In deinem Auge welcher Schmerz!  
Ich ging, du standst und sahst zur Erden  
Und sahst mir nach mit nassem Blick:  
Und doch, welch Glück, geliebt zu werden!  
Und lieben, Götter, welch ein Glück!<sup>10)</sup>

우리의 삶에서 사랑은 최고의 가치이며 사랑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비로

---

10) Johann Wolfgang von Goethe, *Goethes Werke, Bd. 1: Gedichte und Epen I.* v, E, Trunz(Hrsg.), (München: C. H. Beck Verlag, 1982), pp.28-29.



소 삶의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은 또한 우리를 아프게 한다. 제법 적지 않은 여성과의 사랑으로 우리는 괴테를 기억하는데 80대에 들어선 그에게 17세의 울리케에 대한 사랑과 청혼이 무산되자 사랑의 아픔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죽음 또는 지옥과도 같은 아픔으로 다가오는 이별의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괴테는 이미 20대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시로 전하고 있다.

1771년에 쓰였으나 1810년 수정본에서 「환영과 이별 Willkommen und Abschied」로 제목이 붙여진 이 시는 프리데리케 브리온과의 사랑의 경험 이 배경이다. 초고의 첫 행 ‘Mir schlug das Herz’은 수정본에서 ‘Es schlug mir das Herz.’<sup>11)</sup>로 달리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인칭 대명사 ‘Es’가 주어로 쓰인다는 점이다. 우리말로 옮긴다면 “내 가슴이 뛰었다”고 동일하게 번역될 수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매우 차이가 있다. “얼른 말에 게로! 미처 생각도 하기 전에 올라타고 있었다 Geschwind zu Pferde! / Es war getan fast eh gedacht.”<sup>12)</sup>라는 2행의 표현은 사랑하는 이에게로 달려가고자 하는 행동은 행위자의 사고와 판단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의 열정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Es’라는 비인칭주어가 지시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독특한 주체상실의 상태에서 일어난다 Etwas geschieht in eigentümlicher Subjektlosigkeit”<sup>13)</sup>는 것이다. 사랑의 열정은 주체인 나를 저항할 수 없는 힘에 굴복하게 해 주체의 의지와 판단을 넘어서는 사랑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주체성을 망각하는 대신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다.

18세기 중반 이후 시민계급은 사회적 조건에 의한 결혼이 아니라 사랑이 전제되는 결혼을 추구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괴테의 입장은 젊은 베르

11) Johann Wolfgang von Goethe, Ibid. 28.

12) Johann Wolfgang von Goethe, Ibid. 28.

13) Jochen Hörisch, “Mit schlug das Herz, Geschwind zu Pferde”, In: *Interpretationen, Gedichte von Goethe*, hrsg. v. Bernd Witte, (Reclam, 2009), p.13.

테르의 슬픔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사랑은 “고유한 자아를 실현하고 보완하기 위해 올바른 것을 찾고자 하는, Die Richtige zur Ergänzung und Verwirklichung des eigenen Ich zu finden”<sup>14)</sup>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괴테의 경우 사랑은 늘 지속적 관계로 유지되지 못하며, 사랑은 단순히 결혼을 위한 전제는 아니다. 오히려 괴테는 앞서 언급한 듯이 “사랑의 의미를 인간의 실존을 위해 본질적인 것으로 끌어올린 것 daß er [Goethe] die Bedeutung der Liebe für die menschlichen Existenz zum Wesentlichen erhob”<sup>15)</sup>이라 할 수 있다.

관능적 사랑은 사랑을 완성하는 또 다른 조건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이에 선뜻 다가가지 못한 채 이별을 준비한다. 자연스러운 욕망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시민계급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며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포기, 감정조절에 대한 능력이 인간 행위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Fähigkeit zum Verzicht und zur Affektkontrolle werden zum Maßstab menschlichen Handelns”<sup>16)</sup> 나아가 이는 욕망과 회피의 갈등구조를 만들어 내고 여기서 비롯되는 불안을 야기한다. 또한 이후의 전기적 예에서 보여주는 여러 여성과의 사랑이 지속될 경우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존재의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괴테의 인식은 이별을 피할 수 없게 한다.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살아 숨 쉬게 하는 사랑은 그러나 다시 이별의 고통을 가져다준다. 연인과의 만남 이후 아침 해가 떠오르자 벌써 이별이 나의 가슴을 죄어 오고 연인을 떠나가야 하는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지만 이 시의 마지막 두 행은 만남과 이별이라는 사랑의 법칙성을 초월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이별의 아픔이라는 트라우마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랑의 의미를 표

14) Hans-Peter Schwander, *Alles um Liebe? Zur Position Goethes im modernen Liebesdiskurs*, (Westdeutscher Verlag, 1997), pp.316-322, hier 316.

15) Hans-Peter Schwander, *Ibid.* 317.

16) Hans-Peter Schwander, *Ibid.* 322.

현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행복인가, 사랑받는다든 것은! /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신들이여, 또 얼마나 행복인가! Und doch, welch Glück, geliebt zu werden! / Und lieben, Götter, welch ein Glück!”<sup>17)</sup> 죽음과 지옥의 고통과도 같은 이별이라는 삶의 비극적, 실존의 불완전성은, 설사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다시 말해 “존재에 대한 욕망이 삶의 중압감보다 더 강렬할 수 있다는 점 Die Lust am Sein kann stärker sein als die Lust des Daseins”<sup>18)</sup> 을 말하고 있다. 만남은 이별을 피할 수 없다는 사랑의 법칙성을 성찰하고, 나아가 삶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의 행복은 이별의 고통보다 더욱 가치 있다는 인식을 통해 우리는 이별을 인정하고 이별의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 2) 존재의 조건 - 고뇌와 성찰의 양가성

하늘로부터 온 그대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달래 주고  
갑절로 비참한 사람을  
갑절의 원기로 채워 주는구나.  
아, 나는 떠도는 데 지쳤다.  
이 모든 고통과 기쁨은 무엇이란 말인가?  
감미로운 평화여,  
오라, 아, 오라 내 가슴속으로!<sup>19)</sup>

Der du von dem Himmel bist,  
Alles Leid und Schmerzen stillest,  
Den, der doppelt elend ist,

17) Johann Wolfgang von Goethe, *Goethes Werke, Bd. 1: Gedichte und Epen I.* v, E, Trunz(Hrsg.), (München: C. H. Beck Verlag, 1982), p.29.

18) Jochen Hörisch, “Mir schlug das Herz; Geschwind zu Pferde”, In: *Interpretationen, Gedichte von Goethe*, hrsg. v. Bernd Witte, (Reclam, 2009), p.19.

19) 전영애(역), 앞의 책, 257면.

Doppelt mit Erquickung füllest,  
Ach, ich bin des Treibens müde,  
Was soll all der Schmerz und Lust?  
Süßer Friede!  
Komm, ach komm in meine Brust!<sup>20)</sup>

모든 산봉우리 위에는  
안식이 깃들고  
모든 우듬지 위에는  
한 가닥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는구나.  
숲에서는 작은 새들이 입을 다문다.  
기다려라, 머지않아  
그대 또한 쉬리니.<sup>21)</sup>

Über allen Gipfeln  
Ist Ruh',  
In allen Wipfeln  
Spürest du  
Kaum einen Hauch;  
Die Vögelein schweigen im Walde.  
Warte nur, balde  
Ruhest du auch.<sup>22)</sup>

2편의 시로 구성된 『나그네의 저녁 노래 Wandrers Nachtlied』에서 첫 번째

---

20) Johann Wolfgang von Goethe, *Goethes Werke, Bd. 1: Gedichte und Epen I.* v, E, Trunz(Hrsg.), (München: C. H. Beck Verlag, 1982), p.142.

21) 전영애(역), 앞의 책, 257~258면.

22) Johann Wolfgang von Goethe, *Goethes Werke, Bd. 1: Gedichte und Epen I.* v, E, Trunz(Hrsg.), (München: C. H. Beck Verlag, 1982), p.142.

시는 감미로운 평화를 갈망하는 나그네로서의 인간을 노래한다. 그러나 안식에 대한 기대는 “아, 나는 떠도는데 지쳤다. / 이 모든 고통과 기쁨은 무엇이란 말인가? Ach, ich bin des Teribens müde, / Was soll all der Schmerz und Lust?”<sup>23)</sup>라는 표현에서 실망으로 이어진다. 떠도는데 지친 나그네는 고통과 기쁨이라는 상반되는 감정을 호소한다. 고통과 기쁨은 끊임없이 교대로 찾아오는데 “이 모든 고통과 기쁨은 무엇이란 말인가 Was soll all der Schmerz und Lust”<sup>24)</sup>라는 표현에서 고통과 기쁨이라는 두 감정을 soll이라는 단수용법에 사용하는 동사 형태로 표현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6행의 문법적으로 곤혹스런 어법은 발생학적으로 구분되는 두 극단을 하나의 단수로 강제하면서 이들의 오래된 동일성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Genauer betrachtet, verweist aber die grammtikalisch harte Fügung in Vers 6, indem sie die beiden ja auch generisch unterschiedenen extreme in einen Singular zwingt, auf deren unvordenkliche Identität.<sup>25)</sup>

고통과 기쁨 또한 삶과 죽음, 사랑과 미움, 선과 악, 유와 무와 같은 이원론적 명제들의 경우에서처럼 상호지시 관계에서 올바른 의미가 드러난다. 고통과 기쁨의 동일성을 이해하는 독자는 삶의 조건에 눈 뜨는데 이로써 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통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나그네의 저녁노래 I』이 쓰여진 6년 후, 1815년 고타출판사에서 출간된 시집에 『나그네의 저녁노래 II』가 수록된다. 이 시는 1780년 9월 6일 일메나우 지역의 높은 산 키켈헌에서 쓰여졌다. 도보여행 지도에 ‘괴테의 작은 집’으로 표기된 시 탄생 장소와 시인 괴테에 대한 숭배가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괴테에 대한 경외심은 이 시 해석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23) Johann Wolfgang von Goethe, Ibid. 142.

24) Johann Wolfgang von Goethe, Ibid. 142.

25) Uwe C. Steiner, “Gipfelpoesie”, In: *Interpretationen, Gedichte von Goethe*, hrsg. v. Bernd Witte, (Reclam, 2009), p.82.

되었고 이를 이겨내기 위한 전제는 시에 대한 지나친 중압감을 떨쳐버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두 번째 시의 원제는 『하나의 같은 시 Ein Gleiches』인데 편의상 『나그네의 저녁노래 II』로 번역되고 있다. 시의 첫 행, “모든 산봉우리에는 / 안식이 깃들고 Über allen Gipfeln / ist Ruh,”<sup>26)</sup>에서 안식에 대한 기대가 충족된 듯 하나 이는 단지 첫 번째 시와 ‘같은 시’라는 제목과 연관된 피상적 이해일 뿐이다. 두 시가 유사한 성격의 시이기는 하나, 의미의 중요성에 비추어 오히려 거의 대조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감미로운 평화를 갈구하는 첫 번째 시와 자연세계를 관조하는 두 번째 시는 대칭적이다. 첫 번째 시의 걱정적 고뇌는 관조하는 주체의 태도에서 지양되고 있다. 관조란 절제된 자기 버리기에서 가능한데 이는 미적 경험으로 가능하며, 이로써 주체는 자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시의 초입부는 정제된 자연세계를 그리고 있다. 높은 산봉우리는 동식물의 영역보다 상위의 돌로 특징지어지는 세계인데 이 세계는 안식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산 정상은 매우 중요한 형이상학적이며 인류학적 의미를 갖는 장소이다. Der Gipfel ist ein Ort von größter metaphysischer wie anthropologischer Signifikanz.”<sup>27)</sup> 시간이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라 할 수 있다면 공간 또한 그러하다. 예컨대 토마스 만의 작품 『마의 산』의 주인공이 산에 위치한 요양원이라는 마법의 공간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은 공간의 의미를 확인하게 해준다. 이 의미론적 공간에서 나그네는 성찰의 주체가 된다. 형이상학적 장소라는 의미는 성찰의 공간이라는 것이며 인류학적 장소라는 의미는 존재론적 사고와 문화적 존재로서 자연세계와 비교되는 인간을 지시한다.

산정상은 하늘과 대지,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장소이다. 신과 가장 가까워서 만날 수 있는 이 곳은 숭고한 창조의 피조물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돌의 세계인 산정상과 비교해 식물의 세계인

26) Johann Wolfgang von Goethe, Ibid. 142.

27) Uwe C. Steiner, Ibid. 89.

우듬지 위에서는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행동의 영역인 동물 세계에서  
 는 새 또한 입을 다문다. 돌의 세계, 식물세계, 동물세계는 안식의 원칙인  
 말이 사라진다. 자연세계의 안식과는 대조적으로 마지막 두 행에서 “기다  
 려라, 머지않아 / 그대 또한 쉬리니 *Warte nur, balde / Ruhest du auch.*”<sup>28)</sup>  
 라는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독자를 기다린다. 자연세계의 안식과는 달리 인  
 간은 이 순간 안식을 기다려야만 하는 존재임을 알린다. 인간은 자연세계에  
 서 가장 불안한 구성원이다. 따라서 마지막 두 행의 의미를 인간 또한 언젠  
 가 안식에 들게 되리라는 해석은 옳지 않다. 오히려 반대라 할 수 있다.  
 자연세계에서 인간세계로의 이전은 안식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 시  
 는 자연세계의 독특한 안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말하기 행위에서 안식의 좌  
 절에 대해 말하고자하는 것이다. *Nicht von ihr [naturespezifische Ruhe]  
 vielmehr von ihrer Vereitelung im Akt der Rede spricht das Gedicht*”<sup>29)</sup>  
 기다리면 머지않아 안식이 찾아오리라는 약속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죽음  
 이 찾아와야 비로소 안식에 들게 되리라는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숨결과 안  
 식은 죽음의 메타포인데 이는 죽음을 성찰하는 인간의 가치인 죽음으로의  
 선구, 다시말해 죽음을 향해 자각적으로 앞서 달려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은 삶의 종말인 동시에 동요하지 않는 자연과의 합일의 조건이며 인간  
 과 자연의 경계가 사라지는 조건이다.

산 정상에서 자연세계를 관찰하는 주체는 안식이 깃든 자연세계에서 떨  
 어져 나온 대가로 자연세계를 관찰한다. 자연세계에는 들지 못하지만 그리  
 하여 안식은 단지 동경의 대상이지만 이곳에서 추방된 원죄는 성찰의 능력  
 으로 보상받는다. 안식이 깃든 자연세계로부터 추방된 인간의 숙명은 세계  
 를 열린 태도로 성찰하는 능력으로 보상되며 이것이 바로 동전의 양면, 인  
 간의 삶의 양면성이다. 이 시는 우리의 삶이 형이상학적, 인류학적 성찰로

28) Johann Wolfgang von Goethe, *Ibid.* 142.

29) David Martyn, “Dekonstruktion”, In: Uwe C. Steiner, *Gipfelpoesie.* (Reclam, 2009),  
 p.91에서 재인용.

충만할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 3) 시간성 극복

동방에서 내 정원으로 건너온  
이 은행나무 앞에는  
비밀스런 의미가 담겨 있어  
그걸 아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

본래는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누어진 것일까?  
아니면 서로 어우러진 두 개를  
사람들이 하나로 보는 것일까?

이런 의문의 답을 찾다가  
나는 참뜻을 알게 되었다.  
그대는 내 노래에서 느끼지 않는가.  
내가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것을.<sup>30)</sup>

Dieses Baums Blatt, der von Osten  
Meinem Garten anvertraut,  
Gibt geheimen Sinn zu kosten,  
Wie's den Wissenden erbaut.

Ist es ein lebendig Wesen,  
Das sich in sich selbst getrennt?  
Sind es zwei, die sich erlesen,  
Daß man sie als eines kennt?

---

30)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서동시집』, 안문영 외(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121면.



Solche Frage zu erwidern,  
 Fand ich wohl den rechten Sinn;  
 Fühlst du nicht an meinen Liedern,  
 Daß ich eins und doppelt bin?<sup>31)</sup>

1814년 여름, 괴테는 그의 고향인 라인강과 마인강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듬해 5월, 그가 지인들과 하이델베르크로 긴 여행을 하는 시기에 『은행잎 Gingo biloba』이라는 시가 몇 편의 다른 시와 함께 쓰여진다. 『서동시집』에 수록된 이 시는 프랑크푸르트 은행가의 후처가 된 마리안네와의 사랑이 그 배경이다. 9월 15일, 이 시가 쓰여지기 직전 괴테는 그녀에게 은행잎을 사랑의 징표로 보낸다.

형용사가 눈에 띄지 않는 간결한 표현의 이 시는 독자에게 시의 의미를 성찰하도록 요구하는 듯한 소박한 내용이 특징적이다. 눈에 띄는 감각적 세부 묘사나 생생한 표현은 이 시에서 절제되어 있다. 1연 3행 은행잎의 ‘비밀스런 의미 Geheimen Sinn’는 4행 ‘이는 사람 den Wissenden’에게만 드러난다. 은행잎의 형상에서 비롯되는 의미는 2연에서 “본래는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어진 것인지, 아니면 서로 어우러진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것인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자연물인 은행잎은 단순한 시각적 지각대상인 동시에 하나와 둘의 문제에 대한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다시 말해 교훈을 주는 상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단지 현상들 자체가 아니라 이미 그리고 바로 현상들에 숨겨져 있는 교훈은 인식하는 지각행위를 필요로 한다.

Nicht allein die Phänomene selbst, sondern schon und gerade die in ihnen steckende Lehre bedarf der erkennenden Wahrnehmung.<sup>32)</sup>

31) Johann Wolfgang von Goethe. *Goethes Werke, Bd. 2: Gedichte und Epen II.* v, E, Trunz(Hrsg.), (München: C. H. Beck Verlag. 1982), p.66.

32) Mathias Mayer, *Natur und Reflexion*, (Vittorio Klostermann, 2009), p.10.

대상에 이미 내재하는 상징적 의미, 교훈을 얻기 위한 성찰과 인식행위를 통해 3연의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의미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서동시집』의 『줄라이카 시편』에 수록된 이 시는 사랑시 또는 체험시라기 보다는 은행잎의 독특한 형상이 지시하는 의미에 다가가기 위한 독자의 성찰을 요구하는 시라 할 수 있다. 은행잎의 형상에서, 중간 부분이 깊이 패어있는 모양에서 하나인지 둘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관찰하는 독자는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어진 것인지, 아니면 서로 어우러진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그러나 이 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미룬 채,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양가성을 표현하기 위해 은행잎의 형상을 기호학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결정적인 것은 바로 두 가지 질문에 명백한 답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반대로 소위 이것 그리고 또한 저것을 통해 이것 아니면 저것과 결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ntscheidend ist hierbei gerade, daß es keineswegs um eine eindeutige Auflösung dieser Alternative geht, sondern im Gegenteil um eine Verabschiedung des vermeintlichen Entweder-oder, durch ein Sowohl-als-auch.<sup>33)</sup>

사랑을 상징하는 은행잎에서 제기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와 둘의 경계허물기가 전제된다. 사랑으로 교감하는 두 연인은 이미 서로 각자인 둘이나 사랑으로 하나된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두 연인은 하나의 둘의 경계를 넘어 ‘하나이면서 둘’이지만 동시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사랑을 나눈다. 괴테는 자연물 은행잎을 시가 적힌 자필 편지에 동봉하여 보내지만 그 은행잎과 현실에서의 사랑은 유한하다.

33) Sebastian Kaufmann, “Schöpft des Dichters reine Hand ...”: Studien zu Goethes poetologischer Lyrik, (Universitätsverlag Heidelberg, 2011), p.374.

괴테의 동방의 은행잎은 그것이 예술인 글로 쓰여진 잎으로 바뀌는 순간 비로소 자연과 역사의 생성과 소멸에서 벗어나게 된다.

Dem Werden und Vergehen der Natur und der Geschichte entthoben ist Goethes östliches Ginkgo-Blatt erst von dem Moment an, wo es sich in das beschriebene Blatt der Kunst verwandelt hat.<sup>34)</sup>

우리의 삶의 조건인 생성과 소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은 오직 예술을 통해 가능하다. 자연물 은행잎은 설사 그것에 사랑의 의미가 담겨있다 할지라도 시간성에 구속되어 영원할 수 없다. 그러나 문자로 쓰여진 시 은행잎은 두 연인의 사설의 의미를 영원히 지속시킨다. 영원하고자하는, 그러나 영원할 수 없는 사랑이 예술로 승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성에 구속되는 사랑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닌가.

#### 4) 체념의 역설

노년의 지혜가 가득 담긴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에는 ‘체념하는 사람들’이란 부제가 붙어있다. 교양, 자아완성의 단계에 도달한 주인공 빌헬름은 그의 아들 펠릭스와 함께 세상 편력에 나서는데, 그는 이 편력에서 다양한 인물을 통해 체념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코르프 H. A. Korff가 그의 대저 『괴테시대의 정신 Geist der Goethezeit』<sup>35)</sup>에서 지적하듯 이 시대의 목표가 인본주의적 가치를 완성하는 것이라면 ‘인본주의 이상 Humanität’의 마지막 단계인 ‘아름다운 인본주의적 이상 Schöne Humanität’은 체념이라는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수 있다. 본성적 단계로부터 도덕적 단계를 지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은, 다시 말해 아름다운 인본주의적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미적교육을 통해 가능한 듯 보인다. 미적교육은

34) Detlef Kremer, “Gingo biloba”, In: *Interpretationen, Gedichte von Goethe*, hrsg. v. Bernd Witte, (Reclam, 2009), p. 228.

35) Hermann August Korff, *Geist der Goethezeit*, (Leipzig: Koehler & Amelang, 1966).

일상의 제한된 경험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시대와 인간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경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존재인 개인 스스로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자유의지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시대의 주인공은 연극세계에서 시대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 후, 그의 운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탐의 사회로부터 수업증서를 받게 된다. 수업증서는 그가 교양의 단계에 이르렀고, 따라서 사회적 존재로 나아갈 자격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수업시대에서 주인공에게 다양성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셰익스피어를 소개한 아르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굉장한 존재로 생각하고 많은 재능을 습득하려고 하며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의 교양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보다 큰 집단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을 익히며 의무에 따라 활동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망각할 줄 아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을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대비시켜 주는 것은 원래 행동이니까요.<sup>36)</sup>

Es ist gut, daß der Mensch, der erst in die Welt tritt, viel von sich halte, daß er sich viele Vorzüge zu erwerben denke, daß er alles möglich zu machen suche; aber wenn seine Bildung auf einem gewissen Grade steht, dann ist es vorteilhaft, wenn er sich in einer größern Masse verlieren lernt, wenn er lernt, um anderer willen zu leben und seiner selbst in einer pflichtmäßigen Tätigkeit zu vergessen. Da lernt er erst sich selbst kennen; denn das Handeln eigentlich vergleicht uns mit andern.<sup>37)</sup>

보다 큰 집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데 사회적

36)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2』, 안삼환(역), (서울: 민음사, 1999), 235면.

37) Johann Wolfgang von Goethe, *Goethes Werke, Bd. 7: Romane und Novellen II.* v, E, Trunz(Hrsg.), (München: C. H. Beck Verlag, 1982), p.193.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배워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요구 또한 쉽지 않은 자기절제가 전제된다.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의 포기와는 다른 태도이다. 체념이란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대립하기 보다는 자유 의지에서 나오는 자기 절제의 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미적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상의 경험영역을 넘어서는 예술적, 미적 경험은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었던 지평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켜 포기와 강요가 아닌 자유의지에서 우리나는 자기 절제를 가능하게 한다.

전문성과 다양성에 대한 주인공과 야르노의 토론 또한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다방면의 교양이 유익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었지요. 문단이 대답했다. 다양성이란 원래 일면적인 전문성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뿐이지요. 그런데 바로 지금은 전문적인 것이 활동할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전문성의 시대입니다.<sup>38)</sup>

Man hat aber doch eine vielseitige Bildung für vorteilhaft und notwendig gehalten. Sie kann es auch sein zu ihrer Zeit, versetzte jener; Vielseitigkeit bereitet eigentlich nur das Element vor, worin der Einseitige wirken kann, dem eben jetzt genug Raum gegeben ist. Ja, es ist jetzo die Zeit der Einseitigkeiten.<sup>39)</sup>

다양성과 전문성은 일견 상충되는 명제로 보이나, 그러나 전문성이 사회의 요구에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손기술에 자신을 국한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머리를 가진 사람에게게는 그것이 하나의 손으로 하는 일에 불과하겠지만,

38)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1』, 김숙희 외 (역), (서울: 민음사, 1999), 47면.

39) Johann Wolfgang von Goethe, *Goethes Werke, Bd. 8: Romane und Novellen III*, v, E, Trunz(Hrsg.), (München: C. H. Beck Verlag, 1982), p.37.

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예술이 되지요. 그리고 최상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 한 가지를 하면 그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되지요. 보다 덜 역설적으로 말해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제대로 된 한 가지 일에서 제대로 행해진 모든 일의 비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sup>40)</sup>

Sich auf ein Handwerk beschränken ist das beste. Für den geringsten Kopf wird es immer ein Handwerk, für den bessern eine Kunst, und der beste, wenn er Eins thut, thut er Alles, oder um weniger paradox zu sein, in dem einen, was er recht tut, sieht er das Gleichnis von allem, was recht getan wird.<sup>41)</sup>

한 가지 일에 자신을 국한시킨다는 것은 일견 사회적 요구에 굴복하는 듯 보이나 만일 그 전문성이 예술의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또한 다양성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전문성은 삶의 조건에 구속되지만 개인의 개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차원으로 상승가능하다. 이때 비로소 다양성과 전문성의 상호 지지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편력시대』에서 괴테는 자기 절제를 전제로 사회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 사회적 책임의식이라는 주제는 괴테가 젊은 시기부터 주목하였던 문제이다. 바이마르로 자신을 초청한 아우구스트 공의 생일에 헌정된 시 『일메나우』는 1783년 9월 쓰여졌다. 이태리 여행 후 1783년 30대에 들어선 괴테는 기회시의 진주로 평가받은 이 시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의식에 주목하는 그는 “질서는 돌아오고, 확고한 지상의 행복과 번영이 뒤따른다. die Ordnung kehrt zurück, / Es folgt Gedeihn und festes ird'sches Glück.”<sup>42)</sup>고 말한다. 질서란 사회 윤리적 참여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태도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의 자기 제한에 대한 숭고한 감성을 전제로 가능하며 이는

40) 김숙희 외(역), 앞의 책, 48면.

41) Johann Wolfgang von Goethe, Ibid. 37.

42) Johann Wolfgang von Goethe, *Goethes Werke, Bd. 1: Gedichte und Epen I.* v, E, Trunz(Hrsg.), (München: C. H. Beck Verlag, 1982), pp.107~112, hier 112.

바로 노년의 괴테의 체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들을 편안하게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자는 스스로 많은 것이 부족해도 견딜 수 있어야한다. Allein wer andre wohl zu leiten strebt, Muß fähig sein, viel zu entbehren.”<sup>43)</sup>의 요구는 체념만이 가능하게 해준다. 생일은 축복과 즐거움의 날인데 2연에서 노래하듯 “새로운 오늘은 에덴동산을 보게 하라 O laß mich heut’… Ein jugendlich, ein neues Eden seh’n”<sup>44)</sup>는 것은 일상의 의미지평을 넘어 새로운 생명시 탄생, 새로운 인간의 창조자라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이 시는 타자의 현존을 거울삼아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하여 “문학을 통해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면밀한 전략 eine subtile Strategie der Lebensbewältigung durch Literatur”<sup>45)</sup>을 담고 있다. 타자에 자신을 건주어보고 그들과 같은 존재로 명의변경해보는 방식으로 자기를 낫설게 하여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방법이다.

괴테에게 “우리가 우연이라 여기는 것은 실제로는 신이다. Was die Menschen für Zufall halten, in Wahrheit Gott sei”<sup>46)</sup> 삶의 우연은 신의 섭리이며, 특히 삶과 죽음은 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스피노자와 코란을 통해 괴테는 “운명과 신의 의지에 무조건적으로 귀의 해야한다 sich dem Schicksal und dem Willen Gottes unbedingt zu fügen”<sup>47)</sup>는 인식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가치는 과연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서동시집의 시 한 편을 읽어보자.

그대는 세상을 어찌하려는가? 세상은 이미 창조되어 있는데 / 창조주는 모든  
 걸 다 곰곰이 생각하셨다 / 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그 방식을 쫓아라  
 / 이미 길이 시작되었으니 여행을 마쳐라 / 걱정과 근심은 운명을 바꿔놓지 못한

43) Johann Wolfgang von Goethe, Ibid. 112

44) Johann Wolfgang von Goethe, Ibid. 107.

45) Mathias Mayer, “Ilmenau”, In: *Interpretationen, Gedichte von Goethe*, hrsg. v. Bernd Witte, (Reclam, 2009), p.122.

46) Katharina Mommsen, *Goethe und der Islam*, (Insel Verlag, 2001), p.97.

47) Johann Wolfgang von Goethe, Ibid. 100.

다 / 그대를 내휘둘러 영원히 균형을 잃게 할 뿐<sup>48)</sup>

Was machst du an der Welt? Sie ist schon gemacht; / Der Herr der Schöpfung hat alles bedacht. / Dein Los ist gefallen; verfolge die Weise! / Der Weg ist begonnen, vollende die Reise! / Denn Sorgen und Kummer verändern es nicht; / Sie schleudern dich ewig aus gleichem Gewicht.<sup>49)</sup>

신의 의지는 필연적 결과로 이어지나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연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저항할 수 없다. 앞서 설명한 듯이 신탁에 저항하는 인간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고 비극적 결과만 기다린다는 희랍비극의 메시지는 운명에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의 부조리함을 전하는 것이다. 이미 만들어졌고 이는 필연적이며 어떠한 노력으로도 달라질 수 없기에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를 수용하는 자의 태도만이 남은 과제라는 것이다. 체념과 수용의 태도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내적 안정과 주어진 삶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 4. 나오는 말

시지프의 신화는 한편으로 삶의 부조리함을 말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성찰을 통해 부조리함을 깨닫고 마침내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비이성적 세계에 내던져진 인간은 그러나 이성적 존재이다. 이러한 신화적 갈등구조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시작된다. 데카르트가 사고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괴테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조건이 고뇌임

48)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서동시집』, 안문영 외(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96면.

49) Johann Wolfgang von Goethe, *Goethes Werke, Bd. 8: Romane und Novellen III*, v, E, Trunz(Hrsg.), (München: C. H. Beck Verlag, 1982), p.52.



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나는 고뇌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ch leide, also bin ich”<sup>50)</sup>라는 명제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근원적 전제인 고뇌에 대한 괴테의 성찰은 우리가 그 고뇌를 받아들이고 그 고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만남과 이별이 사랑의 법칙성이라면 이별의 아픔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랑의 법칙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별보다 더 소중한 삶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으로 이끌리고 이별을 인정함으로써 이별의 트라우마에서 자유롭게 된다. 인식에 들 수 없는 불안한 존재로서 인간의 고뇌 또한 존재에 대한 성찰 능력으로 보상받는데 인식에 들지 못하는 존재의 불완전성은 이를 성찰하는 인간의 형이상학적 가치와 등가물이라 할 수 없다. 유한한 삶의 불완전성, 시간에 구속되는 삶의 가치들은 또한 예술을 통해 영원히 지속됨으로써 시간성에서 해방된다. 편력시대의 체념은 자아상실이나 자기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체념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는 역설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부조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운명에 저항할 수 없는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절대적 힘에 의한 운명, 또는 신의 섭리에 귀의할 것을 괴테는 제안한다. 이는 그러나 자유의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회피는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운명, 신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일이다. 체념과 순응의 태도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내적 안정과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부조리함, 불합리함, 고뇌는 인간 존재의 기본조건이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조건에 휘둘리고 절망하기 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써 지혜로운 존재로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

50) Uwe C. Steiner, Gipfelpoesie, In: *Interpretationen, Gedichte von Goethe*, hrsg. v. Bernd Witte, (Reclam, 2009), p.80.

## 참고문헌

## 1. Primärliteratur

- 괴테, 요한 볼프강 폰,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1』, 김숙희(역), 민음사, 1999.  
 \_\_\_\_\_,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2』, 김숙희(역), 민음사, 1999.  
 \_\_\_\_\_, 『서동시집』, 안문영 외(역), 문학과 지성사, 2006.  
 \_\_\_\_\_,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2』, 안삼환(역), 민음사, 1999.  
 \_\_\_\_\_, 『괴테 시 전집』, 전영애(역), 민음사, 2009.
- Goethe, Johann Wolfgang von, *Goethes Werke. Bd. 1: Gedichte und Epen I.* v, E, Trunz(Hrsg.). München: C. H. Beck Verlag. 1982.  
 \_\_\_\_\_, *Goethes Werke. Bd. 2: Gedichte und Epen II.* v, E, Trunz(Hrsg.). München: C. H. Beck Verlag. 1982.  
 \_\_\_\_\_, *Goethes Werke. Bd. 7: Romane und Novellen II.* v, E, Trunz(Hrsg.). München: C. H. Beck Verlag. 1982.  
 \_\_\_\_\_, *Goethes Werke. Bd. 8: Romane und Novellen III.* v, E, Trunz(Hrsg.). München: C. H. Beck Verlag. 1982.

## 2. Sekundärliteratur

- Barkhoff, Jürgen, *Goethes Ehrfurchtsgebärden in den Wanderjahren als Anthropologie vom Leibe her*, in *Anthropologie und Literatur um 1800.* hrsg. von Jürgen Barkhoff und Eda Sagarra. Iudicium Verlag. München. 1992.
- Hörisch, Jochen, “Mir schlug das Herz, Geschwind zu Pferde”. In: *Interpretationen, Gedichte von Goethe.* hrsg. v. Bernd Witte. 2009, pp.13~21.
- Kaufmann, Sebastian, “Schöpft des Dichters reine Hand ...”: *Studien zu Goethes poetologischer Lyrik.* Universitätsverlag. Heidelberg. 2011.
- Korff, Hermann August, *Geist der Goethezeit.* Koehler & Amelang. Leipzig. 1966.
- Kremer, Detlef, “Gingo biloba”. In: *Interpretationen, Gedichte von Goethe.* hrsg. v. Bernd Witte. 2009. pp.215~230.
- Mayer, Mathias, “Ilmenau”. In: *Interpretationen, Gedichte von Goethe.* hrsg. v. Bernd Witte. 2009. pp.115~126.

- \_\_\_\_\_, *Natur und Reflexion*. Vittori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2009.
- Mommsen, K, *Goethe und unsere Zeit*. Suhrkamp Verlag. 1999.
- \_\_\_\_\_, *Goethe und der Islam*. Insel Verlag. 2001.
- Schwander, Hans-Peter. *Alles um Liebe? Zur Position Goethes im modernen Liebesdiskurs*. Westdeutscher Verlag. 1997. pp.316~322.
- Steiner, Uwe. C. “Gipfelpoesie”. In: *Interpretationen, Gedichte von Goethe*. hrsg. v. Bernd Witte. 2009. pp.78~95.
- Weidermann, Volker. “Poesie heilt”, *Der Spiegel*. Nr. 11, Saturday, March, 12, 2016. <<https://www.spiegel.de/spiegel/print/d-143591227.html>>. 2016. pp.128~130.
- Witte, Bernd(Hrsg). *Interpretationen. Gedichte von Goethe*. Reclam. Ditzingen. 2009.

Abstract

Healing moments in Goethe's works

Choi, Seung-soo\*

In our age when man is overwhelmed by civilization and the essential values of our lives have become disoriented, literature, along with the other arts, is trying to heal our damaged sick soul.

The original suffering in our lives arises from the fact that rational man is thrown into the absurd, irrational world. Finiteness, the existential restlessness, the impossibility of communication, the misfortune caused by fate, all these things make us despair. The aim of this essay is to examine whether we can find healing moments in Goethe's works to overcome or reconcile such suffering.

Suffering is, according to Goethe, an existential condition in our lives. Therefore, from this situation comes the principle, "I am suffering, therefore I am." Man cannot escape suffering. But for man, the capacity for reflection is inherent. The suffering of separation could be a trauma to the lover, however the moments of traumatic petrification do not suggest that they should be banished from our imperfect existence, from the deficiency of life, but it allows the experience of happiness within the tragic dimensions. The pleasure of being can be stronger than the burden of existence. Suffering, never coming to rest, is balanced by the power of human metaphysical reflection. In this case, man only gains his value for the price of suffering

In Goethe's poem "Gingo Biloba" the ginkgo leaf from the East is seen as a symbol of love, the growth and decay of nature, and the love is relieved only from the moment it has turned into the written piece of art. Then love in art could last forever, which in reality is unfulfilled. The healing

---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oment of renunciation is neither a coercive element nor self-sacrifice. Rather, the voluntary renunciation allows us to act as socially-recognized fellow human. That's the paradox of renunciation. Man may suffer from the blow of fate that unexpectedly assails us; however, we cannot escape from it at all. Goethe also demands a renouncing attitude, or to be more precise, the unconditional submission to the fate and will of God. Because we cannot find an alternative faced with the blow of fate, we should accept that. Only in this way do we learn humility and gratitude, and always do we gain balance. When we finally learn such healing moments from Goethe, we can take our first steps towards becoming a person of wisdom.

Key Words : suffering, reflection, art, renunciation, healing

<필자소개>

이름 : 최승수

소속 : 경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전자우편 : sschoi@knu.ac.kr

논문투고일 : 2019년 7월 12일

심사완료일 : 2019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 : 2019년 8월 26일